

제주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고도화 방안

제주대 경제학과 강기춘

1. 제주경제의 과거와 현재

제주지역의 경제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1.07%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향하여 2003년 현재 0.93%를 기록하고 있으며,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의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1.24%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향하여 2003년 현재 0.92%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1인당 GRDP의 전국평균 대비 수준은 1995년 90.2%를 정점으로 이후 하락하다가 2002년 이후 반등하여 2003년 현재 전국평균의 8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감귤과 관광에 의존하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제주경제는 불안정한 성장을 보여 오고 있는데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한 제주 GRDP의 1986-2003년 중 연평균증가율은 12.6%로 전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나 명목성장률의 변동성은 8.15%로 전국보다 1.73%p 높아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 GRDP의 1986-2003년 중 연평균증가율은 6.23%로 전국보다 0.7%p 낮으나 실질성장률의 변동성은 6.42%로 전국보다 1.53%p 높아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경제는 1990년대 들어 산업의 양극화 현상과 산업경쟁력 약화로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의 경제성장률과 격차를 보이며 역동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명목가격으로 계산한 제주 GDRP의 1997-2003년 중 연평균증가율은 전국의 연평균증가율보다 0.96%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변가격으로 계산한 제주 GDRP의 1997-2003년 중 연평균증가율은 전국의 연평균증가율보다 1.28%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경제의 특징은 경제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되지 않는 규모의 영세성, 감귤과 관광에 의존하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호황과 불황의 차이가 크게 나는 불안정한 경제성장,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전국의 경제성장률과 격차를 보이는 역동성 상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산업고도화 방안

산업고도화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의미하는데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성격의 방안, 산업경쟁력강화 방안, 산업구조고도화 방안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중장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성격의 방안으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기존 계획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들 수 있다. 기업이 가치창출과 고용창출의 원천이므로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02-'11), 제1차 제주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04-'08), 제2차 제주경제발전 5개년 계획('04-'08) 등 각종 중장기계획들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계획의 실행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다시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산업경쟁력강화 방안으로는 국내 민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복권수익금의 활용

도 제고, 지역혁신체제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중장기계획에서 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3-75%에 달하고 있으므로 국내 민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공적인 유치는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중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연 800억원에 달하는 복권수익금이 수익성, 상징성,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에 활용되어 제주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분업과 협업'으로 기동성을 창출하는 범사회적 네트워크인 지역혁신체제가 활성화되어 제주지역의 혁신역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고도화 방안으로는 신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들 수 있다. 잃어버린 제주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21세기 제주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BT 산업, IT 산업 및 청정에너지 산업이 선정되었는데 이러한 산업에서 신성장동력의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식기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심으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언

제주도는 “작지만 강한 세계속의 제주(small but strong Jeju)”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오랜 연구의 결과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이 선정되었으니, 관광산업 및 친환경농업생명산업을 중심으로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뷰티 생물산업 및 디지털컨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선택과 집중' 및 '분산과 균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이중전략이 필요하다. 즉, 현재 국가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혁신 등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 중앙 설득 논리로써 '분산과 균형'의 대외적 전략이 필요하며,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그러한 기회를 활용할 것인가라고 할 때는 전략산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대내적 전략이 필요하다.

“작지만 강한 세계속의 제주”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들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정책결정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vision provider), 기업가는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을(market creator), 그리고 전문가들은 전문지식을 공급해 주는 역할(specialized supplier)을 열정을 가지고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위기 이후 성장세를 회복하여 꾸준히 성장하는 N자형과 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듯 하나 기초체력(fundamentals)을 회복하지 못하고 날개 없이 추락하는 M자형으로 분류된다. 지금 제주경제는 N자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M자형으로 가느냐의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어디로 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과 역량에 달려 있다.